

한국 현대시의 종결 방식 연구*

윤의섭(아주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시 종결 방식의 특성
 - 1) 시의 종결에 대한 인식
 - 2) 종결 예비 단계의 기능
3. 시 종결 방식의 양상과 의미
 - 1) 안정성과 완성미의 추구 - 김소월의 시
 - 2) 의미의 적층과 확장 - 정지용의 시
 - 3) 여운과 지속의 형성 - 박목월의 시
4. 결론

1. 서론

시의 종결 방식에 대한 연구는 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이다. 시의 종결 방식은 시가 끝을 맺는 방법론적 체계와 관련된다.¹⁾ 시는 체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²⁾ 기호로 구성된 의미의 통합체인 시의 체계적 전개 과정은 중심 의미의 확산과 수렴이 이루어지는 중층적 층위의 구조를 이룬다. 이때 시의 의미망은 시의 시작과 중간 전개, 그리고 종결에 이르는 일련의 질서를 따르며 점층적으로 지평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시는 시작 부분부터 시의 마무리를 의식한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시의 창작 주체는 시의 처음과 끝에 관한 의도적 구도를 시 전체의 창작 과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설정하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 편의 시에 나타나는 모든 체계적 전개는 시의 종결 부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고, 따라서 시는 종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필연적인 방향성을 갖는 것이다.

개별적인 시에서 시를 종결짓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시인의 세계관이나 의도, 또는 시인의 창작 방법적 개성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시의 의미, 시의 전개 체계, 시의 예술성과 같은 시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즉, 한 편의 시에 존재하는 종결 방식은 그 시가 갖고 있는 내적 전개 과정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 종결 방식에 대한 연구는 다만 시의 종결부³⁾만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반의 전개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주의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시의 종결에 대해서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분석할 필요성이 확보되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간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시의 종결은 모든 문학이나 예술이 그렇듯이 작품의 끝 부분에 상존하는 당위적인 양상이다.⁴⁾ 그러나 한 편의 시가 형태적으로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8-A00087)

1) Barbara Herrnstein Smith, *Poetic Closure, A Study of How Poems End*, Chicago U.P., 1968, vii.

2) Jurij Lotman, 유재천 옮김, 『예술 텍스트의 구조』, 고려원, 1991, 97면.

3) 이 논문에서 '종결부'는 한 편의 시를 마무리하고 끝을 맺는 특정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에서 끝을 맺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종결을 짓는가라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시의 완결성과 예술성이 결정된다는 점 등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종결 형식에 대해 헨스타인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등 영미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식적 분류를 시도하고 시의 종결을 구조와 문체에 관련지어 종결 방식이 갖는 의미를 밀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⁵⁾ 특히 한국 현대시의 종결 방식에 대한 연구는 시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종결 방식이 시의 구조와 의미 등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920년대 초기를 전후한 시기의 시는 전 시대의 경향, 즉 사회적, 계몽적 목소리를 표방하는 경향이 감소하고 개인의 감정적 내면과 낭만성을 드러내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면서 나름의 미학에 의거한 자유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⁶⁾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 서구로부터 유입된 시의 영향과 내적 근대성의 요구에 의한 새로운 양식의 시가 다양한 방향으로 실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시에 나타난 양식적 특징의 파악을 통해 이후 한국 현대시가 어떠한 시 양식을 선택하고 계승해 갔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근대적 시 양식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의 예술성과 세계에 대한 자아의 표출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시의 종결 방식의 형성에도 긴밀하게 관계된다. 즉 시의 종결 방식에는 시에 대한 시대적, 미학적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더니즘이 유입된 1930년대의 시나 암흑기였던 1940년대의 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의 종결 방식에 대한 연구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통시적인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20년대와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의 시를 시 종결 방식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시를 다루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시 종결 방식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낸다고 보이는 각 시대 시인의 시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본 연구는 1920년대의 시로는 시의 내용은 물론, 형태와 기법 등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는 김소월의 시를 거론하고자 한다.⁷⁾ 1930년대에는 모더니즘의 특징과 함께 동양적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정지용의 시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⁸⁾ 그리고 1940년대는 『靑鹿集』을 통해 서정시로서의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박목월⁹⁾의 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이들의 시 외에도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시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의 종결 방식에 있어서 특정 면모와 유형적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시대별로 변별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이들 시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즉 시 종결 방식에 대한 각각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대상 시의 종결 방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 종결 방식의 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의 종결 방식을 창작 주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아울러

4) Barbara Herrnstein Smith, 앞의 책, 같은 면.

5) Barbara Herrnstein Smith, 앞의 책. 이와 함께 문학 작품의 종결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할 수 있다. Frank Kemode, 조초희 옮김,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 문학과 지성사, 1993, Paul Ricoeur,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 2』, 문학과 지성사, 2000, 윤의섭, 「한국 현대시의 종결 구조 연구」, 『한국시학연구』 15호, 한국시학회, 2006.4.

6)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上』, 학연사, 2002, 138면.

7) 김소월 시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위의 책, 363면과 엄성원, 「김소월 시의 문학사적 위상 - 소외된 타자에서 현실 인식의 주체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5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6을 참조.

8) 이에 대해서는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1』, 한국문연, 1996, 223~232면과 이승원, 『20세기 한국시인론』, 국학자료원, 1997, 78면 참조.

9)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2』, 한국문연, 1996, 529면.

시의 종결에 대한 독자의 인식 역시 살펴볼 것이다. 시의 종결 방식에 대한 창작 주체의 인식은 형식미와 함께 의미 영역에 있어서 전달 의도의 성취에 긴밀하게 관여한다. 또한 독자 역시 시의 종결을 통해 시의 누적적 의미를 획득하고 나름의 지평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의 종결 방식과 독자와의 관계 역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모든 시에는 시의 종결을 미리 알려주는 표지가 나타나는 부분인 종결 예비 단계가 존재한다.¹⁰⁾ 본 논문은 시의 종결 예비 단계가 갖는 기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 대상 시의 종결 방식에 나타난 특성을 시의 구조 체계, 미학적 의미 등과 관련지어 고찰할 것이다.

시의 종결 방식에 대한 규명은 단순히 시가 끝을 맺는 방법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시의 종결 방식은 시 전체의 구조와 맞물려 형성되며 시의 의미 전달 성패에 관계된다. 이는 시의 종결이 한 편의 시를 완결 짓고, 독자에게 있어 시를 예술적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시 종결 방식의 의의가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2. 시 종결 방식의 특성

시의 종결에 대한 방법론적 양식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에 있어 근본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세계를 대하는 자아의 태도이다. 이때 세계는 타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시를 통한 자아의 타자 인식은 곧 타자 지향이나 자아로의 회귀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든 자아에게 있어서 타자는 늘 외재적 존재이다.¹¹⁾ 이때 시의 종결은 미래와의 조우이며 타자와 만나는 최초이자 최종적 지점을 형성한다. 따라서 시의 종결 방식은 외재성으로서의 타자, 즉 세계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를 실현하는 특정한 방법이다. 창작 주체가 이렇게 시의 종결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양상은 시의 종결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한 시의 종결 예비 단계 역시 시 종결 방식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의 종결에 대한 인식

시의 종결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창작 주체의 인식과 독자의 인식이 그것이다. 우선 창작 주체가 시의 종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시의 종결은 시의 기술 방향을 따라 전개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시의 마지막 부분에 상존함과 동시에 대부분은 미리 기술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시의 종결에 대해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명확하게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종결에 대한 인식에 의해 시의 내용과 구조 체계가 움직여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창작 주체는 시를 전개하면서, 혹은 시를 구상하면서 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시의 전개 과정은 시의 종결을 미리 예비하는 과정이며 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완결하고 의미를 증폭시킬 수 있을가를 고려하는 과정이다.

한때는 만흔날을 당신생각에
밤까지 새운일도 업지안치만

10) 윤의섭, 앞의 논문, 168면.

11) 강연안, 「레비나스 : 타자성(他者性)의 철학」, 『철학과현실』, 1995. 여름호, 158면.

아직도 꽤마다는 당신생각에
축업은 벼개까지의꿈은 잊지만

낮모를 판세상의 네길꺼리에
애달피 날저무는 갓스물이요
감감한 어둠은밤 들에헤메도
당신은 니저바린 서름이외다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비오는 모래밭에 오는눈물의
축업은 벼개까지의꿈은 잊지만
당신은 니저바린 서름이외다

김소월, 「남에게」(『진달래꽃』, 매문사, 1925) 전문¹²⁾

위 시의 종결부는 3연 전체이다. 3연에서는 1연의 “축업은 벼개까지의꿈은 잊지만”과 2연의 “당신은 니저바린 서름이외다”라는 행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1연과 2연에 대한 敷衍이자 壓縮的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전달하려는 意味를 더욱 強調¹³⁾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시 전체를 정리하고 통합적 완결을 짓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 3연은 “당신은 니저바린 서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화자의 정서와 심리, 그리고 생각을 종합하면서 그 전달 의도를 심화·확장시키며 시를 종결하는 방식을 보인다.

위 시에서 창작 주체는 종결부인 3연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시를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2연의 마지막 행인 “당신은 니저바린 서름이외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시의 핵심 의미를 드러내는 이 부분까지 1연과 2연은 통합축을 따르는 문장의 결합으로 연결되어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의 의미망 역시 이 부분으로 수렴되고 있는데 3연은 이것의 반복이자 강조로 구성되어 있다. 3연은 “당신”의 계열어, 즉 “모래밭에 오는눈물”, “축업은 벼개까지의꿈”, “니저바린 서름”이 선택축을 따라 은유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3연 이전에 쓰였던 시어를 반복하면서도 이전 문체의 지속을 멈추고 다른 양상의 문체로 변화된 것이다. 즉 3연에 이르러서는 시를 종결지을 때 선택·강조할 시적 의미와 시어가 1연과 2연을 거치면서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장 구조와 시어의 반복 형태는 율격적 질서를 형성하며 그것의 의미심장성이라는 전체를 창조한다.¹⁴⁾ 위 시에서 창작 주체는 3연을 통해 시를 종결하면서 시 전체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창작 주체가 시의 종결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시의 완결성, 시의 형태 및 시의 구조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시가 세계와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고 어떠한 의미로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기획이자 대화이다.¹⁵⁾ 이렇듯 창작 주체는 시가 독자에게, 그리고 예술로서의 가치 형성에 최초로 다가설 지점을 고려하면서 시의 최종 단계를 결정하는 방식이 시를 완결된 미적 세계¹⁶⁾로 창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2) 이후 김소월의 시는 오세영 편저, 『김소월』, 문학세계사, 1993의 시를 자료로 하며 시인과 시 제목만 표기함.

13) 이경수, 「金素月 詩의 反復 技法 연구」, 『어문연구』 13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3, 350면.

14) Jurij Lotman, 앞의 책, 239면.

15) 울드리치에 의하면 “예술 작품이란 감지에 대해 미적 대상으로 기획된 하나의 물질적인 사물”이다.(Virgil C. Aldrich, 오병남 옮김, 『藝術哲學』, 종로서적, 1983, 179면)

16) 박이문, 『예술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6, 108면 참조.

한편 독자는 시의 종결을 시를 처음 읽기 시작할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시든 끝나지 않는 시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가 종결에 이르러 어떤 의미를 어떤 시적 효과를 통해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독자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의 종결에 대한 독자의 예지와 기대로 인해 시의 종결은 다가올 미지의 미래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 시는 어느 순간 그 지속이 정지하게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시의 종결은 독자에게 있어 영원한 미래 지속의 결어로 간주되는 가장 개연성 있는 지속적 사건으로 인식된다.¹⁷⁾

독자에게는 처음부터 종결부까지 시의 의도와 의미가 누적되고 시의 종결에 이르러서는 시의 완결과 함께 독자 지평 형성된다. 이때 시의 종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발생한 기대와 예감이 결부되고 시를 종결 부분에서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음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의 종결부는 독자와 최후에 만나는 지점인 동시에 최초로 만나는 지점이기도 한다. 결국 시를 읽는 독자의 시간은 시의 종결에 이르러 또 다른 지평의 시간으로 전환된다. 리코어의 견해를 빌리면 시의 종결에 이어 독자에게는 실질적 시적 시간이 창조된다.¹⁸⁾ 시의 종결에 대한 기대, 긴장, 미래 예지 등의 독자 인식은 시 종결 이후 이완, 현재, 과거 등의 시간성을 경험하며 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시적 세계를 자신의 지평으로 갖게 된다. 시의 종결은 독자에게 시의 완결성, 안정성, 통합성, 통일성, 예술성 등을 인지도시킨다. 시의 종결을 인식하고 있는 독자는 결과적으로 시의 종결이 가져오는 이러한 효과에 대해 내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시의 종결을 통해 독자는 시적 시간과 의미가 형성하는 영원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시가 어떠한 종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그 강도와 지각 양상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의 종결 방식은 시의 예술성 획득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종결 예비 단계의 기능

구조적 체계의 층위로 이루어지는 시 형식은 의미와 결합하여 기능적 구조체로서 작동한다. 시의 종결 역시 일련의 시 구조 속에서 연쇄적 반응 고리에 의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편의 시는 창작 주체의 인식 작용에 의해 시의 종결을 미리 예비하는 특정한 표지를 갖고 있다. 시의 전개 과정에서 구조적 필연성에 의해 시가 마무리될 무렵 종결을 예비하는 표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표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종결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시의 종결이 시작되는 것이다.¹⁹⁾

종결 예비 단계가 갖는 일차적 기능은 시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다는 데 있다. 또한 종결 예비 단계 이전까지의 시간적 흐름과 시의 의미가 종결 예비 단계에 이르러 수렴되고 시가 종결될 것을 준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독자에게 있어서 종결 예비 단계는 시의 마무리 단계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시의 내적 리듬에 대한 율동, 혹은 읽기의 호흡을 가다듬게 하며, 시의 종결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완과 환기의 작용을 한다. 이와 함께 시 자체에 있어서 종결 예비 단계는 시의 종결이 리듬, 어조, 의미, 형식 등의 차원에서 창작 주체가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웃절 중이 여섯판에 여섯번 지고 웃고 올라 간뒤 조찰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용새를 쫓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랴다 차고 几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

17) Barbara Herrnstein Smith, 앞의 책, 37면.

18) Paul Ricoeur, 앞의 책, 167면 참조.

19) 윤의섭, 앞의 논문, 169면.

위 시는 의도적인 휴지의 강화를 통해 율격적 리듬과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특히 밑점으로 표시된 “오오 견디란다” 부분은 앞 뒤 부분과 일정한 휴지 간격을 두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종결 예비 단계이다. “오오 견디란다”와 함께 뒤에 이어지는 밑줄 친 부분 “차고 几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는 이 시의 종결부로서 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문장을 서로 도치시켜 놓아 겨울의 산속에서 “슬픔도 꿈도 없이” 견디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오오 견디란다”에 의미의 강세가 주어지고 뒷부분은 부연과 여운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 시는 종결 예비 단계 이전까지 고요하고 추운 겨울산에 처한 화자의 상황이 통합축을 따른 문장 결합에 의해 제시되다 종결 예비 단계에 이르러 그것을 견디고자 하는 자아 내면을 향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때 종결 예비 단계를 포함한 종결부는 “견디란다”에 예측되는 선택축을 따른 계열어인 “차고 几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겨울 한밤내”로 구성되어 있어 결합에 의해 전개되어 오던 종결부 이전까지의 문체가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오오”에서 알 수 있듯 감탄사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어 시 전개의 리듬을 고조시키면서 앞서 전개되었던 결합어의 의미망을 수렴하고 뒤에 이어지는 계열어의 문장을 통해 그것을 내면으로 심화·지속시키고 있다. 창작 주체의 입장에서 종결 예비 단계는 시 전체의 의미 맥락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시를 마무리 짓기 위한 예비의 표지로 작용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내사사 애달픈 꿈꾸는 사람
내사사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

밤마다 홀로
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로

기인 한밤을
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로

어느날에사
어둡고 아득한 바위에
절로 임과 하늘이 비치리오

위 시의 종결 예비 단계는 밑점으로 표시한 부분인 “어느날에사”이다. 이 부분 이전까지 시는 반복적 문장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즉 1연은 각 행이 반복적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2연과 3연도 각각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결부인 4연은 반복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위 시의 종결부는 시의 마무리를 위해 시의 반복적 전개를 멈추고 지금까지 펼쳐졌던 의미망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체의 변화는 종결 예비 단계의 기능을 하는 “어느날에사”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반복적 전개가 “어느날에사”에서 끝나는 동시에 “있기로”로 이어지던 율격적 호흡 역시 이 부분에서 바뀌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자의 행위를 보여주던 시의 흐름 역시 종결 예비 단계를 거치면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어둡고 아득한 바위에/절로 임과 하늘이 비치리오”

20) 이후 정지용의 시는 이승원 주해, 『원본 정지용 시집』, 깊은샘, 2003의 시를 자료로 하며 시인과 시 제목만 표기함. 시의 밑점과 밑줄은 필자가 표기한 것이며 이후 다른 인용시에서도 마찬가지임.

21) 이후 박목월의 시 인용에는 시인과 시 제목만 표기함.

는 앞의 내용을 축약하면서 화자의 사유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 시의 종결 예비 단계는 시의 종결을 알리는 분명한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종결 예비 단계에 이르러 시의 절정을 감지하고 시의 핵심 의미에 집중하게 된다. 동시에 독자는 이 시가 종결에 이르렀다는 것을 문체의 변화나 의미의 표지 등을 통해 지각하게 되고 시가 의도하는 의미의 지속을 예비하게 된다. 독자에게 있어서도 종결 예비 단계는 시 전개 과정에서의 시간적 흐름이 수렴되게 하는 기능과 환기 작용, 그리고 시의 완결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종결 예비 단계는 시적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자리를 점유하게 된다. 이는 시라는 예술적 존재가 드러내는 세계를 향한 대화이며 시적 자아를 향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종결 예비 단계의 기능은 개별 시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시의 전개 과정에서 표지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 구조 체계의 질서를 따른다. 따라서 의미 수렴과 시 의도 표출, 그리고 시의 마무리를 이끄는 유도체로서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각 시마다의 종결 방식이 드러내는 변별적 특성에 따라 종결 예비 단계의 여러 기능 중 특정한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다.

3. 시 종결 방식의 양상과 의미

본 장에서는 김소월, 정지용, 박목월의 시를 대상으로 시 종결 방식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각 시인의 시 종결 방식은 두드러진 개별적 특성을 드러낸다. 물론 시의 종결 방식이 갖는 본질적인 기능, 즉 시의 마무리, 시의 의미 강조, 시적 정서의 환기 등은 대부분의 시에 두루 나타난다. 그러나 시인별 시의 종결 방식은 시인의 세계관, 시대적 경향, 시적 가치관, 창작 방법론 등의 차이에 의해 특히 강조되는 유형이 있으며 특정한 방식이 자주 사용되는 등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인별 특성이 갖는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안정성과 완성미의 추구 - 김소월의 시

김소월의 시는 치밀한 사전계산에 의해 씌어졌음을 알 수 있는 시가 다수 확인된다.²²⁾ 이를 뒷받침 하는 하나의 근거로 운율적 형식에 대한 고려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김소월 시에서 율격 구조는 세마디 율격의 반복적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의도적인 정형적 형식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미에는 개별적 형식미를 포괄하는 구조적 원리가 심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²³⁾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은 수미상관식 구조이다. 수미상관식 구조는 시의 처음과 끝의 동일한 반복, 혹은 끝 부분의 변형적 반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시의 종결 방식에 대한 의도적 선택의 결과이다.

산에는 꽃피네
꽃피네
갈 봄 너름업시
꽃피네

22)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上』, 367면.

23) 조창환, 『한국현대시의 운율론적 연구』, 일지사, 1986, 69면.

(중략)

산에는 꽃지네
꽃치지네
갈 봄 녀름업시
꽃치지네

김소월, 「山有花」 부분

인용한 시는 「山有花」의 1연과 4연으로, 자수, 행 구분, 문장 구조 등의 결합 관계가 동일 반복되고 있으며 단어는 약간의 변형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의미는 1연에서 3, 4연을 거치는 사이 적층되어 4연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꽃이 피었다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환적 질서를 함유하며 자연의 순리를 깨닫고 있는 화자의 사유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위 시의 종결부인 4연은 시적 의미가 집결되고 시 형식이 마무리 되도록 1연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구성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형태적으로 볼 때 이러한 종결 방식은 안정성의 효과를 유발한다.²⁴⁾ 그러나 안정성은 다만 1연과 마지막 연의 형태적 동일성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가 종결되어 확산되었던 의미망이 통합되고 의미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1연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시의 처음 상태로의 회귀 심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안정성이 유발된다. 또한 위 시의 안정성은 종결 예비 단계인 “산에는 꽃지네/꽃치지네”로 진입하면서 1연에서 경험한 비슷한 문체와 詩形을 만나게 되는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과 시 종결을 예비하게 하는 효과 등의 작용을 통해서도 획득된다.

수미상관식의 종결 방식은 다른 유형의 방식보다 시적 완성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미상관식 구성의 시만이 아니라 김소월의 다른 시에서도 특정한 종결 방식을 통해 완성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정한 방식이란 시의 종결부에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시의 주요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고요하고 어둡은밤이오면은
어스러한 燈불에 밤이오면은
외로움에 압픔에 다만혼자서
하염업는눈물에 저는 읊니다

제한몸도 예전엔 눈물모르고
췌그만한世上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지낸날의 옛이야기도
아뭇서름모르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님이 가신뒤에는
아주 저를버리고 가신뒤에는
前날에 제게잇든 모든것들이
가지가지업서지고 마랏습니다

그러나 그한때에 외와두엇든
옛이야기뿐만은 남았습니다
나날이짓터가는 옛이야기는

24) Barbara Herrnstein Smith, 앞의 책, 35면.

위 시의 시제 양상을 살펴보면 1연은 현재, 2연과 3연은 과거, 4연은 다시 현재로 이루어져 있다. 말하자면 위 시는 이야기 형식을 갖고 있는 액자형 구조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적으로 볼 때 수미상관식 구성은 아니더라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도하는 종결 방식을 보여준다. 동시에 위 시는 시적 완성미를 수미상관식 구성과는 다르게 추구하고 있다. 위 시는 외로움과 아픔으로 혼자 울고 있다는 고백으로 1연을 시작한다. 그리고 2연에서는 과거에는 ‘눈물도 서름도’ 몰랐다고 말한다. 3연에서는 화자가 울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님이 가버렸고 화자에겐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4연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한때에 외와두엇든/옛이야기뿐만은 남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화자가 우는 이유는 그 옛이야기가 “나날이짓터가”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이어진다. 이처럼 시는 1연에서 3연까지 화자의 사연을 들려주며 통합축을 따른 문장 결합으로 이어져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다가 종결 예비 단계인 “그러나”를 통해 그 흐름을 조절하면서 환기를 시켜준다. “그러나”는 지금까지의 시 전개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임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또한 모든 게 없어졌다는 바로 윗부분의 내용을 전환시켜 다른 상황으로 방향을 바꾸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위 시의 종결부는 사실 1, 2, 3연의 상황에 대한 변형적인 대응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종결부를 구성하는 주 요소인 “그한때에 외와두엇든/옛이야기”, “남았습니다” “제몐”, 그리고 “올려줍니다”는 각각 2연의 “옛이야기도/아뭇서름모르고 외와 습니다”, 3연의 “업서지고 마랐 습니다”, 2연의 “제한몐”, 그리고 “웁니다”와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의 측면에서 보면 1, 2, 3연은 결합관계로 전개되고 있지만 종결부에서는 계열어, “옛이야기”, “나날이짓터가 는”, “제몐” 등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종결부가 1, 2, 3연에 대해 선택축을 따르는 전개 방식으로 바뀐 양상이다. 종결부인 4연은 1, 2, 3연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 극적 전환을 유도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던 전개 양상을 조절하여 종결을 형태적으로도 지각하게 하는 종결 방식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시 전체의 의미 맥락을 종결부에 압축하고 종결부에 의미의 무게를 형성코자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시의 전개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완결된 마무리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정시는 아무리 서사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이미지와 의미망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집중됨으로써, 어떤 시적 순간을 성취하려는 근원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²⁵⁾ 이렇게 볼 때 위 시의 4연에 나타나는 집약적 방식과 대응 형식의 구성은 시의 종결부에 이르러 완결성과 완성미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미상관식 종결 방식으로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진달래 꽃」, 「鴛鴦枕」, 「산」 등과 종별부에서 앞부분의 전개 과정을 대응 형식으로 집약하여 완성미를 유도하는 「찬저녁」, 「往十里」 「金잔디」 등의 시가 있다. 김소월 시의 종결 방식은 이밖에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김소월 시의 종결 방식에서 주목할 것은, 시에 대한 김소월만의 가치관이 반영된 운율의 의도적 배치, 그리고 형태, 구조와 밀접하게 결합된 의미 체계를 통해 안정성과 완성미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2) 의미의 적층과 확장 - 정지용의 시

정지용 시에는 김소월의 시와는 달리 수미상관식 방식이나 율격적 반복의 형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1920년대의 시 경향과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1930년대의 시 경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

25) 김현자, 「김소월 시의 극적 구성과 미적 거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7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12, 269면.

만 무엇보다 시를 대하는 미의식이 정형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결 방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종결부의 특성, 즉 시조의 종장이나 가사의 종행, 그리고 향가의 낙구 등에서 보이는 유형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시를 마무리하는 데 작용하는 관습적 창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다.

아아, 너는 山새처럼 날리 갔구나!(「琉璃窓」 부분)
 아아 石榴알을 알알이 비추어 보며(「石榴」 부분)
 오오, 異國種 강아지야(「카예·쁘란스」 부분)
 아아, 愛施利·黃!(「슬픈 印象畫」 부분)
 아아, 아모리 기다려도 못 오실니를(「幌馬車」 부분)
 오오! 新約의太陽을 한아름 안다.(「나무」 부분)
 오오, 나의 幸福은 나의 聖母마리아!(「또 하나의 다른 太陽」 부분)

인용한 부분은 모두 『정지용 시집』(시문학사, 1935)에 실린 것으로 정지용의 초기시와 중기시 단계에 속한 것이다.²⁶⁾ 이후에 나온 시집 『白鹿潭』(문장사, 1941)에는 앞장에서 인용한 바 있는 「長壽山 1」의 “오오 견디란다”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유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아”나 “오오”와 같은 감탄사를 종결부에 넣어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후기시로 갈수록 점차 사라지고 다른 방식의 유형으로 바뀌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은 직접적 감정 표출이 이루어지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를 유발하지만 “詩의 威儀”는 “안으로 熱하고 겉으로는 서늘”한데서 나온다는 그의 시에 대한 가치관에서 알 수 있듯 직접적인 감정 표출 방식을 점차 지양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 정지용 시의 종결 방식은 의미의 적층과 확장을 유도하는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후기시 단계에 이르러서는 종결 방식이 세계, 즉 타자 지향보다는 보다 강화된 결의를 자아의 내면으로 끌어들이려는 자아 회귀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풀도 떨지 않는 돌산이오 돌도 한덩이로 열두골을 고비고비 돌았세라 찬 하늘이 골마다 따로 씨우었고
 어름이 굳이 열어 드딤돌이 믿음즉 하이 평이 괴고 꿈이 밍은 자욱에 나의 발도 노히노니 물소리 귀뚜리
 처럼 唧唧하듯다 피락 마락하는 해사살에 눈우에 눈이 가리어 았다 흰시울 앞에 흰시울이 놀리워 숨쉬는다
 온산중 내려앉는 획진 시울들이 다치지 안히! 나도 내던져 았다 일즉이 진달래 꽃그림자에 붉었던 絶壁 보
이한 자리 우에!

정지용, 「長壽山 2」 전문

위 시는 종결부가 시작되는 “나도 내던져 았다” 이전까지는 통합축을 따르는 결합 관계의 문장이 전개되고 있다. 즉 “長壽山”에 들어선 화자가 목격하고 있는 “돌산”, “골”, “얼음”, “디딤돌”, “물소리”, “흰시울” 등의 풍경이 화자의 이동과 시선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종결 예비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결합 관계의 문장 전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응축된 형태의 문장 도치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외적 상황으로 확장되어 있던 시의 전개 과정이 “나”라는 주체의 “내던져 았”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로 관점이 전환된

26) 정지용의 시는 그 경향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양왕용, 『정지용 시 연구』, 삼지원, 1988, 95면,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63면, 최동호, 「鄭芝溶의 山水詩와 隱逸의 精神」, 『민족문화연구』 19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6, 79~112면 참조.

27) 정지용, 「詩의 威儀」, 『문장』 10호, 1939.11.(정지용, 『정지용 전집 2』, 민음사, 2003, 327면에서 재인용)

다.²⁸⁾ 이로써 종결 예비 단계는 이전까지의 열거식 전개가 시의 종결을 이루기 위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며 창작 주체가 의도한 시적 의미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시의 마무리를 예비한다. 시의 전개 과정상 창작 주체 역시 시의 종결을 예비해야 하므로 종결에 대한 기대 상황의 한 지점은 지금까지 전개돼오던 문체나 의미의 상황과는 다르게 조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⁹⁾ 그런데 시의 전체 구조상 위 시의 종결부는 의미의 적층과 확장을 의도한다. 우선 시의 중간에 위치한 “나의 발도 노히노니”는 궁극적으로 “長壽山”과 융합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따라 화자의 행위는 “絶壁”에 “내던져 앓”게 된다. 그러나 종결부는 의미론적 관계에 있어서는 결합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와 “絶壁 보이한 자리”와 같은 선택축에 의한 계열어로 구성되어 있다. 즉, 종결부 이전에 제시되었던 “長壽山”의 여러 사물과 “나”, 그리고 ‘보이한 절벽’과 “흰시울”은 각각 은유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은유에 의한 전이를 통해 화자는 “長壽山”과 일체를 이루고자 하는 시적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의 종결 방식에는 지속적으로 펼쳐졌던 시 의미가 누적되어 적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앞 문장과 도치된 방식으로 “일즉이 진달래 꽃그림자에 붙었던 絶壁 보이한 자리 우에!”라고 표현함으로써 적층된 시 의미를 강조하고 보다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 자연과 자아와의 융합을 의도하고 있는 위 시는 종결부에 이르러 그 의도를 자아를 향해 강하게 제시함으로써 내적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로 아츰,

새삼스레 눈이 덮힌 피뿌리와
서늘웁고 빛난 이마받이 하다.

어름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롭어라.

웅숭거리고 살어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들고
움짖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전 철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잡고 싶어라.

정지용, 「春雪」 전문

위 시는 1연의 “먼 산이 이마에 차라”가 제시하는 촉각적 감각과 의미가 시의 종결부인 6, 7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심적 의미망을 형성하는 지배소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³⁰⁾ 따라서 다음에

28) 이 시의 종결부가 종결부 이전까지의 전개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앞부분에 나온 “나의 발도 노히노니”가 자발적 행위가 아닌 피동적 행위로 표현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9) Barbara Herrnstein Smith, 앞의 책, 33면.

이어지는 “눈이 덮힌 뿔뿌리”,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 “철아닌 눈”, “칩고 싶어라.” 등은 ‘산이 차다’와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 결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연에 나타난 지배소의 지속력이 종결부까지 누적되어 초봄이지만 화자 자신은 오히려 “도로 칩고 싶”다는 의미의 적층·확장이 유도되고 있다. 또한 “차라”, “향기롭어라”, “설어라”, “싫어라”와 같은 동일 어미의 초행적 반복³¹⁾은 시 전반에 걸쳐 의미론적 긴장과 강조를 부여한다. 이러한 일관된 조직화가 의도하는 바는 봄과는 다르게 겨울이 지닌 매력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 더구나 위 시의 종결 예비 단계는 겨울의 찬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며 이질적인 현상, 즉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옴짓 아니기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초봄의 상징을 제시하여 종결부 이전까지의 전개와 확연한 구분을 이루고 있다. 이 역시 의도적으로 상반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겨울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또한 6연과 7연의 “꽃 피기전”이 수식적 관계를 형성, 자연스럽게 창작 주체가 강조하려 했던 본래의 의도로 시가 전개되도록 구성되었다. 즉 “햇웃 벗고 도로 칩고 싶어라”라는 자아의 욕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시의 종결부는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계열어로 이루어져 있어 문체 변화에 의한 종결 표지는 없지만 상반적 상황의 제시를 통한 상대적 부각 효과 등을 통해 시 종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 시는 종결 예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지속되어 오던 의미망을 보다 극대화시키려는 종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정지용 시에 나타난 종결 방식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결부까지 의미의 적층을 이루면서 그것을 심화·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특징인 회화성, 주지성 등이 시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면서 시의 마무리에 그것이 강하게 환기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정지용 시의 종결부에는 앞서 김소월의 시에서 살펴본 바 있는 반복 양상이나 시어의 통합적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역시 모더니즘의 회화성, 주지성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시 종결 방식의 시대적 차이는 개별 창작 주체의 개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문예사조, 시대적 여건, 유행 등의 시대적 경향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지용 시의 경우 동양적 자연관을 드러내고 있는 후기시 단계에서도 동양화적 기법이나 제유적 방식을 통해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³²⁾ 즉 의미망을 전개 과정에서 펼쳐다가 시의 종결에 이르러 그것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적층된 의미를 표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3) 여운과 지속의 형성 - 박목월의 시

『靑鹿集』에 수록된 박목월의 시는 단아함과 친숙함, 그리고 단단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³³⁾ 그것은 그의 시가 이상적 자연 공간을 전통적 율격과의 조화 속에서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목월 시의 율격은 의도적으로 자수율이나 음보를 맞추고 있으며 전체적 구조에 있어서도 안정감과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의 시는 전통 지향성, 전원 지향성 등을 통해 이전 시대의 모더니즘과의 변별성을 획득하고 있는데,³⁴⁾ 시의 종결 방식 역시 특히 율격적 장치에 의해 조절되거나 기획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30) 이승훈 엮음, 『한국문학과 구조주의』, 문학과비평사, 1988, 97면 참조.

31) Jurij Lotman, 앞의 책, 276~280면 참조.

32) 정지용의 시집 『靑鹿潭』에 나타난 동양화의 회화적 기법과 관련해서는 최동호, 앞의 논문과 소래섭, 「鄭芝溶의 詩에 나타난 自然認識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2001 등을 참조하고 제유적 특성에 대해서는 윤의섭, 「정지용 시의 시간의식 연구」, 아주대 박사논문, 2005를 참조할 것.

33) 김대행, 「목월시의 운율」, 박현수 엮음, 『박목월』, 새미, 2002, 70면.

34) 김재홍, 「목월시의 성격과 시사적 의미」, 위의 책, 88면.

박목월의 시는 1940년대 시 종결 방식의 특성 중 일면을 드러낸다.

머언 산 靑雲寺
낡은 기와집

山은 靑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사잇 피어가는 열두구비를

靑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박목월, 「靑노루」 전문

위 시의 공간적 위상은 원거리에서 시작해 근거리로 향하고 있다. 즉 실제로는 “靑노루”가 “머언 산” 너머 “구름”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의 전개에 따라 “머언 산”에서 출발한 시선은 “열두구비”를 거쳐 “靑노루”의 눈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국 위 시는 종결부인 “靑노루/맑은 눈”을 소실점으로 삼으며 “靑霞山”의 풍경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종결부의 마지막 연인 “도는/구름”을 통해 다시 시야를 확대시켜 보다 이상적인 세계를 펼쳐 놓는다. 특히 종결 예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4연은 위 시가 보여주는 시선이 모이는 지점으로,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적 상징인 “靑노루”가 등장하여 이전까지 전개되던 시의 흐름이 수렴되고 있다. 더구나 1, 2연에서는 각 첫 행을 2음보로 조직하여 율격적 질서를 유지하다 3연에서는 첫 행을 단일 음보로 놓아 호흡과 리듬이 분절되고 있다. 이로써 시는 자연스럽게 시의 종결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종결부에 등장하는 “靑노루”와 “구름”의 이미지가 앞부분과의 율격적 구분을 통해 무게를 얻게 되고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율격에 있어서 정형성을 고수하지 않고, 리듬이 구속이 아니라 시의 이미지 전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³⁵⁾ 이러한 종결 방식은 종결부인 4연과 5연이 율격적으로 차별하면서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리듬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종결 예비 단계에서 “靑노루”로 수렴되었던 의미망은 “맑은 눈에”로 이어져 문맥적으로 다음의 종결을 기대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도는/구름”에 이르러 감각적 지평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받침 자음인 ‘ㄴ’과 ‘ㄹ’이 형성하는 유성음의 울림 작용과도 관계된다. 결국 위 시의 종결부는 발음상의 여운과 의미상의 여운이 동시에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³⁶⁾ 또한 율격적 행 구분을 통해 호흡의 지속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성은 창작 주체의 의도와 관련하여서 볼 때 주체의 세계관을 타자-세계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동시에 의미에 있어서도 떠도는 구름의 이미지에 세속을 초월한 영원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전체가 인접성의 원리에 따른 환유적 결합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시는 종결부의 율격적 분절과 조절을 통해 그 흐름이 수렴되고 다시 확산·지속되는 종결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5) 조창환, 『한국시의 넓이와 깊이』, 국학자료원, 1998, 36면.

36) 최병선, 「분행의 음운적 특성을 중심으로 본 박목월 시의 문체」, 『한국언어문화』 2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214면 참조.

松花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피꼬리 울면

산적이 외딴 집
눈 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박목월, 「閏四月」 전문

위 시 역시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 “松花가루”, “봉우리”, “피꼬리”, “외딴 집”, “처녀”, “문설주”가 결합 관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 전체의 전개는 종결 예비 단계를 중심으로 균일성이 조절되고 율격적 리듬이 변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종결 예비 단계 바로 이전의 2연에서 “피꼬리 울면”이라는 부분은 문법적으로는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 대한 분절 효과를 유도한다. 또한 종결 예비 단계의 “눈 먼 처녀사”에서는 휴지까지의 호흡이 길어지는데 이는 호흡이 짧게 끊어지는 2연의 “울면”과 비교하여 율격적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시는 종결을 예비하게 되는데 “엿듣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강한 인상을 남기며 마무리 된다. 종결부에 집약된 중심적 의미는 시의 율격적 리듬에 따라 지속성과 여운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시 역시 시 세계에 대한 타자 지향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종결부 이전까지의 시 전개가 종결부로 수렴된 이후 확산의 전개 과정에 따른 연계성에 의해 종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다.

위 시의 시간적 배경인 “閏四月”은 음력으로 사월이 거듭되는 시간이므로 현실적으로 드문 현상이다. 따라서 위 시는 신비적 시간성을 배경으로 전개되는데 여기에 “눈 먼 처녀”가 등장하여 더욱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현실성과는 거리가 먼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물이 놓여 있어 이질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있지 않아도 되어 서러운 감정을 불러오는 “이상한 흐느낌”³⁷⁾을 느끼게 한다. 이는 1, 2연의 시간적 배경이 종결부의 공간적 배경과 중첩된 상태에서 “애절한 윤사월의 계절감과 그것과 조화되지 않는 또하나의 심정—어둡고 괴로운 고적감이 꿈 꾸는 서러운 동경등 이런 여러 가지가 착종”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³⁸⁾ 특히 위 시의 종결부는, “閏四月”은 끝나지 않고 “눈 먼 처녀”가 있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리라는 여운을 “엿듣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江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37) 박목월, 『보라빛 素描』, 신흥출판사, 1958, 78면.

38) 위의 책, 78~79면.

南道 三百里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나그네」 전문

위 시는 전체적으로 통합축을 따른 결합관계가 주된 문체로 이어졌지만 2연과 종결부는 은유 관계를 형성하는 계열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江나루”, “밀밭”, “南道”, “마을”, “놀” 등의 시·공간을 형성하는 배경은 “구름에 달 가듯이/가는 나그네”를 뒷받침하고 그 은유성을 보다 부각시키는 주변 요소로 작용한다. 위 시의 종결부 5연은 형태상 2연의 동일 반복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시 전개에 따라 심화·적층되어 있다. 2연에서의 “나그네”는 단순히 “밀밭 길”을 가는 “나그네”이다. 그러나 다음 전개에서 “길은 외줄기”, “三百里” 등을 통해 외로움과 고난으로 점철된 “나그네”라는 의미가 첨가되고 “술 익는 마을”에 의해 현실에 초연한 삶의 태도가 부연됨으로써 종결부에 이르러 “나그네”는 고독과 초탈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누적된 의미망에 의해 종결부의 “구름에 달 가듯이”에서 나타나는 율격적 리듬은 의미의 무게가 실린 지속성을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행 “가는 나그네”에서도 지속성이 확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있다. “나그네”에 대한 이러한 의미와 이미지 제시에 의해 독자는 시가 종결되고 나서도 “南道” 어딘가를 걸어다니는 “나그네”를 연상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독자의 입장에서 종결 예비 단계인 5연의 “구름에 달 가듯이”는 2연에 대한 반복이므로 종결을 예비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종결부는 독자에게 적층된 의미를 수렴하고 반복 운율에 대한 율격으로 그 여운과 지속력을 형성시켜 주고 있어 시 세계에 대한 창작 주체의 의도가 타자 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박목월의 초기시는 전반적으로 운율론적 배려와 회화적 이미지 제시 등의 시적 장치를 통해 시의 종결 이후에도 시의 의미와 의도가 여운을 남기고 지속되는 타자 지향적 종결 방식을 보여준다. 물론 앞서 살펴본 다른 시인의 시에서 나타난 종결 방식의 특성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박목월의 시 종결 방식에서 두드러진 특성은 여운과 지속의 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말의 암흑기를 거처온 1940년대 박목월 시의 종결 방식이 반복과 여운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시대적 여건으로 인해 조성된 전통 지향성의 면모가 반영된 경우로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시의 종결 방식에 나타난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선 시 종결 방식의 특성을 시의 종결에 대한 인식과 종결 예비 단계의 기능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시의 종결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창작 주체의 인식과 독자의 인식이 그것이다. 창작 주체가 시의 종결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시의 완결성, 시의 형태 및 시의 구조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시가 세계와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고 어떠한 의미로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창작 주체는 시가 독자에게, 그리고 예술로서의 가치 형성에 최초로 다가설 지점을 고려하면서 시의 최종 단계를 결정하는 방식이 시를 완결된 미적 세계로 창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는 시의 종결을 시를 처음 읽기 시작할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있다. 시의 종결에 대한 독자의 예지와 기대로 인해 시의 종결은 다가올 미지의 미래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 시의 종결은 독자에게 있어 영원한 미래 지속의 결여로 간주되는 가장 개연성 있는 지속적 사건으로 인식된다. 독자에게는 처음부터 종결부까지 시의 의도와 의미가 누적되고 시의 종결에 이르러서는 시의 완결과 함께 독자 지평 형성된다. 이로써 시의 종결은 독자에게 시의 완결성, 안정성, 통합성, 통일성, 예술성 등을 인지시킨다.

한편 시는 종결 예비 단계를 갖고 있다. 종결 예비 단계가 갖는 일차적 기능은 시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다는 데 있다. 또한 종결 예비 단계 이전까지의 시간적 흐름과 시의 의미가 종결 예비 단계에 이르러 수렴되고 시가 종결될 것을 준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독자에게 있어서 종결 예비 단계는 시의 마무리 단계 이전까지 전개되었던 시의 내적 리듬에 대한 울둑, 혹은 읽기의 호흡을 가다듬게 하며, 시의 종결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완과 환기의 작용을 한다. 이와 함께 시 자체에 있어서 종결 예비 단계는 시의 종결이 리듬, 어조, 의미, 형식 등의 차원에서 창작 주체가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종결 예비 단계에 이르러 시의 절정을 감지하고 시의 핵심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동시에 독자는 이 시가 종결에 이르렀다는 것을 문체의 변화나 의미의 표지 등을 통해 직각하게 되고 시가 의도하는 의미의 지속을 예비하게 된다. 독자에게 있어서도 종결 예비 단계는 시 전개 과정에서의 시간적 흐름이 수렴되게 하는 기능과 환기 작용, 그리고 시의 완결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시 종결 방식의 양상과 의미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낸다고 보이는 시, 즉 1920년대의 김소월의 시, 1930년대의 정지용의 시, 1940년대의 박목월의 시를 살펴보았다.

김소월의 시는 치밀한 사전계산에 의해 씌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김소월 시에서 율격 구조는 세마디 율격의 반복적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의도적인 정형적 형식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미상관식 구조는 시의 처음과 끝의 동일한 반복, 혹은 끝 부분의 변형적 반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시의 종결에 대한 의도적 선택의 결과이다. 물론 수미상관식 구조가 아닌 다른 시에서도 김소월은 운율적 배려를 통한 의도적 종결 방식을 보여준다. 김소월 시의 종결 방식에서 주목할 것은 시에 대한 김소월만의 가치관이 반영된 운율의 의도적 배치, 그리고 형태, 구조에 밀접하게 결합된 의미 체계를 통해 안정성과 완성미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즉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안정감을 고려한 종결 방식은 시의 형식적, 예술적 완성미를 유도하는 방식인 것이다.

정지용 시의 종결 방식은 의미의 적층과 확장을 유도하는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후기시 단계에 이르러서는 종결 방식이 세계, 즉 타자 지향보다는 보다 강화된 결의를 자아의 내면으로 끌어들이려는 자아 회귀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지용 시에 나타난 종결 방식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결부까지 의미의 적층을 이루면서 그것을 심화·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특징인 회화성, 주지성 등이 시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면서 시의 마무리에 그것이 강하게 환기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지용의 시는 의미망을 전개 과정에서 펼쳐다가 시의 종결에 이르러 그것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적층된 의미를 표출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박목월의 『靑鹿集』에 수록된 초기시는 전반적으로 운율론적 배려와 회화적 이미지 제시 등의 시적 장치들 통해 시의 종결 이후에도 시의 의미와 의도가 여운을 남기고 지속되는 타자 지향적 종결 방식을 보여준다. 물론 앞서 살펴본 다른 시인의 시에서 나타난 종결 방식의 특성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박목월의 시 종결 방식에서 두드러진 특성은 여운과 지속의 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일제 강점기 말의 암흑기를 거처온 1940년대 박목월 시의 종결 방식에 반복과 여운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시대적 여

건으로 인해 조성된 전통 지향성의 면모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시의 종결 방식은 창작 주체의 의도와 시 의미, 시대적 경향, 그리고 세계관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시의 개별적 종결 방식을 모두 다루지 못했고 시대적 차이의 이유와 의미를 보다 면밀히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종결 방식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밝히기 위한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함으로써 부족한 면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현대시의 종결 방식이 갖는 미학적 의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현대시, 종결, 종결 방식, 종결 인식, 종결 예비 단계, 안정성, 완성미, 적층, 확장, 여운, 지속, 예술성

참고문헌

1. 자료

박목월, 『靑鹿集』, 을유문화사, 1946.
오세영 편저, 『김소월』, 문학세계사, 1993.
이승원 주해, 『일본 정지용 시집』, 깊은샘, 2003.

2. 논저

강연안, 「레비나스 : 타자성(他者性)의 철학」, 『철학과현실』, 1995. 여름호, 147~166면.
김대행, 「목월시의 운율」, 박현수 엮음, 『박목월』, 새미, 2002, 57~70면.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上』, 학연사, 2002.
_____, 『한국현대시사 1』, 한국문연, 1996.
_____, 『한국현대시사 2』, 한국문연, 1996.
김재홍, 「목월시의 성격과 시사적 의미」, 『박목월』, 새미, 2002, 71~92면.
김현자, 「김소월 시의 극적 구성과 미적 거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7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12, 249~275면.
박목월, 『보라빛素描』, 신흥출판사, 1958.
박이문, 『예술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6.
소래섭, 「鄭芝溶의 詩에 나타난 自然認識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2001.
양왕용, 『정지용 시 연구』, 삼지원, 1988.
엄성원, 「김소월 시의 문학사적 위상 - 소외된 타자에서 현실 인식의 주체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5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6, 9~34면.
윤의섭, 「정지용 시의 시간의식 연구」, 아주대 박사논문, 2005.
_____, 「한국 현대시의 종결 구조 연구」, 『한국시학연구』 15호, 한국시학회, 2006.4, 149~179면.
이경수, 「金素月 詩의 反復 技法 연구」, 『어문연구』 13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3,

339~364면.

- 이승원, 『20세기 한국시인론』, 국학자료원, 1997.
- _____,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 이승훈 엮음, 『한국문학과 구조주의』, 문학과비평사, 1988.
- 정지용, 『정지용 전집 2』, 민음사, 2003.
- 조창환, 『한국시의 넓이와 깊이』, 국학자료원, 1998.
- _____, 『한국현대시의 운율론적 연구』, 일지사, 1986.
- 최동호, 「鄭芝溶의 山水詩와 隱逸의 精神」, 『민족문화연구』 19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6, 79~112면.
- 최병선, 「분행의 음운적 특성을 중심으로 본 박목월 시의 문체」, 『한국언어문화』 2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205~225면.
- Aldrich, V. C., 오병남 옮김, 『藝術哲學』, 종로서적, 1983.
- Kemode, F., 조초희 옮김,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 문학과 지성사, 1993.
- Lotman, J., 유재천 옮김, 『예술 텍스트의 구조』, 고려원, 1991.
- Ricoeur, P., 김한식·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 2』, 문학과 지성사, 2000.
- Smith, B. H., *Poetic Closure, A Study of How Poems End*, Chicago U.P., 1968.

Abstract

A Study on Closure Method in Modern Korean Poetry

Youn Euisoup(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and the significance of closure method in poetry. A creator presents closure of poetry. A creator considers when a poem should approach to its readers and to form values as an art as well as understands that deciding the final stage of a poem is very important in creating a poem as a complete aesthetic world. Also, closure of a poem presents completeness, stability, unity and artistry. Poetry has a certain sign to prepare for the closure through perception of a creator, that is, closure preparation phase. Primary function of the closure preparation phase is to notify that a poem is about to end. In addition, at the closure preparation phase, previous time flow and meaning of a poem are converged and closure of the poem is prepared. For readers, closure preparation phase is to refine prosodic reading on a poem's inner rhythm or reading rhythm and to relax and refresh for preparing the closure. This study examines such closure method and its significance by reviewing several representative poems in each era: poems by Kim, So Woel in 1920s; Jeong, Ji Yong in 1930s; and Park, Mok Woel in 1940s. Closure method in Kim, So Woel's poems sought stability and completeness. Closure method in Jeong, Ji Yong's poems emphasizes layering and expansion of meanings. Mokwoel Park's early poems in 『Cheonglokjib[靑鹿集]』 show closure method in which meanings and intentions of a poem create and maintain suggestiveness, which is other-oriented closure method. Closure method in modern Korean poetry should be studied further in terms with a reference intentions, significance and world view of a creator. This study hopefully

brings the importance of aesthetic significance of closure method in modern Korean poetry to light.

Key words : modern poetry, closure, closure method, presenting closure, closure preparation phase, stability, completeness, layering, expansion, suggestiveness, maintain, artistry

윤의섭

소속 :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소 : (우: 426-82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3-10 101호

이메일 : siche11@chol.com